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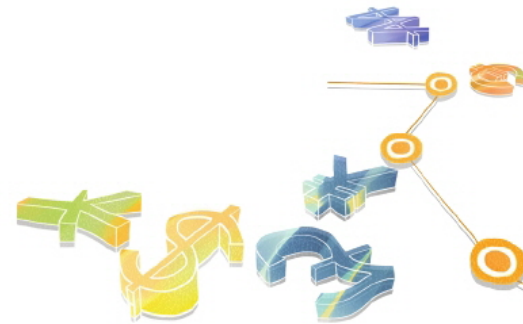
NASC

News Letter

www.nasc.or.kr

Volume.

08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국가회계제도 동향

외국회계제도 동향

영국공공부문회계 : 국가소유 보물 회계처리
- Financial Times 기사 번역(2012년 3월 8일)

공지사항

NASC 기획재정부위탁
국가회계기준센터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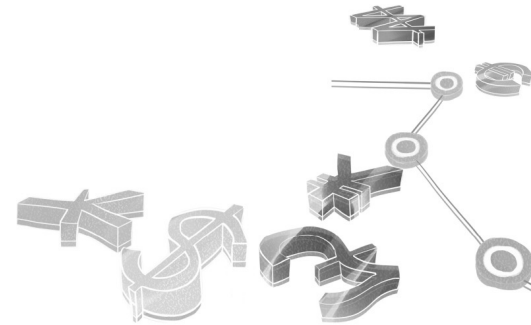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선도합니다.

www.nasc.or.kr



NASC

Volume. 08
News Letter
www.nasc.or.kr



목차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국가회계제도 동향

외국회계제도 동향

영국공공부문회계 : 국가소유 보물 회계처리

- Financial Times 기사 번역 (2012년 3월 8일)

공지사항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유동훈 연구원 - 국가회계기준센터 국가회계기준팀

Tel_02.3149.7556 / e-mail_blacksky21@kicpa.or.kr

01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결산 T/F” 운영

국가회계기준센터는 발생주의·복식부기를 적용한 국가통합재무제표가 올해 5월 최초로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재무제표 결산지원 강화’라는 전략목표를 세우고 지난해 12월말부터 결산 T/F 운영을 통해 부처별 결산보고서 작성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결산 T/F는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에 배치한 「국가회계·결산지원단」의 결산지원이 실질적으로 신뢰성 높은 재무제표 작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강화하면서 결산지원 업무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수정사항, 미비점 등을 분석 하여 각 부처의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차질 없이 재무제표가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국가회계기준센터의 결산 T/F는 「국가회계·결산지원단」의 각 부처 결산지원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행할 예정으로 국회제출이 마무리되는 5월까지 각 부처의 결산업무 및 국가통합재무제표 작성 등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결산 T/F 업무 내용>

① 신뢰성 높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공조 체계 강화

- 1) 2012년도 국가회계·결산지원단을 대상으로 국가회계전문교육 실시
- 2) 개별법 상 보고서와 재무제표 계정과목 간의 비교 검토 등을 위한 템플릿 작성
- 3)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오류 등 사례 수집

② 각 회계·기금 및 중앙관서 결산담당자들의 재무결산 관련 질의 대응

- 1) 국가회계기준센터 콜센터 운영, 각 부처 전담연구원 배정하여 지속적인 질의 대응
- 2) 기금, 기업특별회계, 중앙관서 결산검토 및 국가통합 재무제표 작성 지원
- 3) 제출된 각 부처별 재무제표와 내부거래 정보를 기초로 국가통합 재무제표 작성 지원

③ 각 중앙관서별 및 국가통합 재무제표 작성결과 분석

1) 중앙관서별 및 국가통합 「재무제표 주요 증감원인 분석 및 예산결산과의 연계 분석」

02 국가회계 · 결산지원단 교육실시(1.10~11)



국가회계기준센터는 1.10~11일(2일간)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201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결산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집된 「국가회계 · 결산지원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회계 · 결산지원단」은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전문인력으로서 각 중앙관서에 현장배치되어 재무제표 작성지원 및 회계처리 검토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지원단의 국가회계 · 결산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현장 업무 지원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특히 발생주의 · 복식부기를 적용한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서가 국회에 최초 제출될 예정임에 따라 강의 커리큘럼 중 기존의 이론부분은 교재로 대체하고 “재무결산시 유의사항, d-Brain회계실무 이해, 내부거래제거 등” 대부분을 실무위주의 강의로 구성하여 현장의 결산업무를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국가회계 · 결산지원 전문교육을 마친 지원단은 현재 47개 중앙관서에 배치되어 각 부처의 재무결산을 지원하고 있다.

03 제7차 국가회계기준자문위원회 개최(1.20)

국가회계기준센터 업무의 전문적 ·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센터 내 자문기구인 국가회계기준자문위원회(위원장 전중열, 서울과학기술대학 경영학과교수)가 지난 1월 20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가 내부통제기준 제정 연구(안), 중요성 여부에 대한 연구 등 2개의 안건을 보고하고 센터 업무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04

국회예산정책처 「제6회」 「예산정책 지식포럼」 발제(2.15)



국가회계기준센터 편호범소장은 지난 2월 15일 국회의정관에서 개최된 제6회 「예산정책 지식포럼」에서 「국가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국회 결산심사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날 포럼은 올해 5월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적용한 국가통합재무제표가 처음으로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에 따라 국가재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 방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입법부의

재정 전문기관으로서의 국회예산정책처의 변화된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편호범소장은 발표를 통해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도입 배경 및 특징 등을 설명하고 이어서 국회결산심사의 과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①회계처리 오류사항에 대한 심사보다는 분석기능 강화의 필요성과 ②예산과 회계의 연계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날 포럼은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발 제 : 편호범(국가회계기준센터 소장)
- 지정토론 :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
조의섭(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 진 행 : 윤용중(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팀장)

05

국가회계기준센터 콜센터 운영

국가회계기준센터는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지원을 위해 “결산지원 콜센터(02-3149-7561)”를 운영 중이다. 각 부처 결산담당자의 유선질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결산관련 질의회신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부처 별 전담연구원을 배정하였으며, 홈페이지를 「Q&A게시판」을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국가회계제도 동향



임정혁 연구원 - 국가회계기준센터 평가분석팀

Tel_02_3149,7553 / e-mail_rau438@kicpa.or.kr

01

정부회계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 출제

2월 26일에 실시된 제47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회계학 과목의 일 부분으로 정부회계가 출제되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정부회계 관련 내용이 회계사 시험에 반영되는 첫해임을 감안해 법령과 규정에 한정해 문제를 출제한다고 밝히며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중 정부회계 관련 내용을 회계학과목의 10% 내외로 반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출제된 문항수는 5문제로 회계학 50문제에서 1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출제된 문제를 분석해 보면, 당초 금융감독원과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연구하여 발표한 것처럼 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관한규칙과 준칙에서 출제되었으며, 기업회계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출제되었다. 앞으로도 정부회계 시험범위 조정과 2차시험 반영 등에 국가회계기준센터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02

감사원 국가재무제표 부처 감사

감사원에서는 발생주의·복식부기를 적용한 201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올해 초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등 8개 분류로 나눈 45개 중앙부처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 할 8개 회계법인을 선정하였다. 선발된 회계법인은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집중 실시되는 결산업무 보조자로 참여한다. 이번 조치는 검사결과의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한정된 감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ADB-KDI 공동 국제 컨퍼런스 개최(2.16)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기획재정부의 후원으로 2월 16일 신라호텔에서 「재정정보시스템 혁신과 아시아의 변화」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재정관리시스템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의 우리나라 재정관리시스템은 기존의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로의 전환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재정관리시스템 개선에 있어 국가를 비롯한 공공분야의 발생주의 회계 적용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 금번 컨퍼런스를 통해 선진국의 발생주의 회계도입 역사와 현황 및 우리나라의 상황을 재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컨퍼런스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아시아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 ‘국가의 발생주의회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재정정보시스템의 혁신, 무엇을 바꾸었나’ 등 세 개 세션에서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티에리 드 룡게마르 ADB 부총재, 싸지쓰 루치카 아티갈 스리랑카 재정기획부 차관보, 짐 안드레아스 버그만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로버티 다이시 미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 위원 등 재정·회계분야의 국내외 최고 석학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외국회계제도 동향



김효정 연구원 - 국가회계기준센터 국제협력팀
Tel_02,3149,7559 / e-mail_smiley@kicpa.or.kr

01 IFAC,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서 안내서의 스페인어 번역본 출간(2012년 3월 7일)

127개국에 회원과 준회원을 두고 있는 국제회계사조직인 국제회계사연맹(IFA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서-2011년판” 안내서의 스페인어 번역본을 출간 하였다.

스페인의 자라고자 대학교(University of Zaragoza) 경제·경영학부 회계재무학과 교수들이 스페인어번역을 담당하였고 동 번역본은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스페인, 우루과이 출신의 공공부문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위원회에서 검토했다.

“본 안내서는 특히 공공부문재무제표 작성자들을 위해 개발된 포괄적인 회계규정과 지침을 제시한다. 스페인과 중·남미에서 공공부문회계기준이 점차 더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스페인어 번역본 출간이 더욱이 반가운 일이다.” 라고 안드레아 버그먼(Andreas Bergmann)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위원장은 말했다. 또한 이언 볼(Ian Ball) IFAC 회장은 “이번 번역본의 발행으로, 스페인어 사용국가에 국제공공부문 회계기준(IPSAS)이 도입되고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고 독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세계 많은 국가들의 국가채무문제는 공공부문의 재무관리 및 보고개혁이 굉장히 시급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번역본은 이러한 개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공공부문의 비교가능성, 투명성, 회계책임성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IFAC는 2012년 3월 19일과 20일에 “국가채무위기, 시급한 문제: 교훈에서 개혁에 이르기까지”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월드뱅크그룹(World Bank Group)의 최고재무책임자인 빈센조 라비아(Vincenzo LaVia), 미국재도약계획(Comeback America Initiative)의 설립자이자 CEO이면서 전 미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인 데이비드 워커(David Walker), 전 스웨덴 총리 고란 퍼슨(Göran Persson)을 포함한 저명한 초청연사들이 참석할 것이다. 이들간의 세미나에서

IPSAS의 도입과 이행의 역할, 발생주의 회계의 성공, 개혁 및 정합에서 재무전문가의 역할, 공익보고의 복잡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밖의 정보는 sdseminar@ifac.org에 문의하면 된다.

IPSASB 연구보고서 제14호, “발생주의 회계로의 전환: 정부 및 정부기관에 대한 지침(Transition to the Accrual Basis of Accounting: Guidance for Governments and Government Entities)”에 대한 스페인어 번역본 역시 최근에 출간되었다. 두 프로젝트는 월드뱅크의 지원과 중남미·카리브해 연안국가들을 위한 스페인 펀드(Spanish fund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ribean)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분담금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

본 간행물은 IFAC 웹사이트에서 PDF 형식으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본 간행물의 복제, 배포, 보급은 IFAC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추가 정보는 permissions@ifac.org에 문의하면 된다. IFAC의 간행물의 번역본은 IFAC 번역본 데이터베이스(www.ifac.org/about-ifac/translations-permissions/translations-database)에 소개되어 있다.

02 IPSASB, ‘공공부문개념체계’ 협의안에 대한 공개 의견 요청(2012년 1월 31일)

2012년 1월 31일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공공부문의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를 발표하여 의견을 구했다. “개념체계”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의 IPSASB의 핵심전략목표이며, 최소한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 근본적인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제정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공공부문의 일반목적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표시(안)”에서는 공공부문 기관의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정보의 제공에 적용 가능한 개념을 검토하고 있으나, 자문보고서의 범위는 재무제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자문보고서에서는 정보의 제공(presentation)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술하고, 정보제공은 표시(display)와 공시(disclosure) 모두를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자문보고서는 이용자의 요구에 기반한 정보제공 목표, 질적 특성을 적용한 정보제공여부의 결정, 세 가지 정보제공 개념을 포함하는 정보제공 방식을 검토한다. 세 가지 정보제공 개념은 비용대비 효율적이며, 충분히 적시성있는 정보로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적절한 곳에 표시하고, 중요한 관계를 명확히 하고 비교가능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조직하는 것이다.

“개념체계”는 IPSASB의 장기적인 기준제정활동의 근본원리를 제시한다.”고 안드레아 버그먼(Andreas Bergmann) IPSASB 위원장이 설명했다. “본 자문보고서는 단순히 재무제표에 초점을 맞추는 협의의 시각을 취하는 대신에 보다 포괄적인 재무보고에 대한 시각을 적용하여, 정보제공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IPSASB의 향후 기준제정활동에서 ‘개념체계’가 갖는 중심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모든 관계자들이 본 자문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평가했다.

자문보고서와 자문보고서를 요약해 놓은 문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하려면, IPSASB 웹사이트(www.ipsasb.org)를 방문한다. 본 자문보고서에 대한 의견은 2012년 5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IPSASB는 IFAC회원, 준회원, 지역회계사조직의 회원들과 직원들이 본 자문보고서를 보다 널리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03

FASAB, 사용 중인 일반유형자산의 감액손실회계처리안에 대한 의견 요청 (2012년 2월 28일)

톰 앨런(Tom Allen) 미국연방정부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 FASAB가 “사용 중인 일반유형자산의 감액손실회계처리”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공개초안은 기관들이 일반유형자산(G-PP&E: general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감액손실의 영향을 지속적인 해당 일반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용의 일부로 보고하거나 해당 일반유형자산의 처분 후에 보고하는 대신에, 감액손실이 발생하는 시점에 재무제표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발생시점의 감액손실비용, 보고기관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 감액손실회계처리 후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공개초안에 따르면, 모든 기관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감액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여 기관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개선될 것이다.

“FASAB은 이번 회계처리안을 개발함에 있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준을 상당히 많이 참고했다. 방대하고 다양한 연방정부의 일반유형자산을 고려하여 비용효율적인 방식으로 감액손실을 측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공개초안에 따라 기관들의 기존 평가방식이 직접적으로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톰 앨런 위원장은 말했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이미 관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에 의존하여, 절차보다는 중요한 감액손실을 인식하는데 중점을 둘 것을 권장하고자 한다.”

이번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은 2012년 5월 28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의견제출시 응답자들이 자신의 의견에 대한 근거를 동시에 제시해 준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PDF와 워드 형식의 공개초안과 공개적으로 의견이 요청되고 있는 구체적인 질문사항은 FASAB 웹사이트(<http://www.fasab.gov/board-activities/documents-for-comment/exposure-drafts-and-documentsforcomment>)에 있다.

영국공공부문회계: 국가소유 보물 회계처리¹⁾ (Public sector accounting: How to treat treasures)

윤정원 책임연구원 - 국가회계기준센터 국제협력팀

Tel_02_3149,7555 / e-mail_ jyoona@kicpa.or.kr

강렬한 색을 이용하여 생생하게 묘사된 “다이아나와 악타이온”은 티치아노의 걸작(런던 국립미술관 소장) 중 하나이다. 이 그림은 악타이온이 목욕하는 사냥의 여신을 훑쳐보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불쌍한 악타이온은 이로 인해 결국 사슴이 되어 죽임을 당한다.

작품이 제작된 후 450년 이상이 흐른 뒤, 이 극적인 그림은 좀 더 세속적인 명성을 갖게 된다. 즉, 영국 첫 국가 대차대조표상 포함된 몇몇 문화재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엘긴마블스(Elgin Marbles), 로제타석, 빅토리호(HMS Victory)와 달리 티치아노의 작품은 작년에 재무부가 발행한 최초의 “정부전체 통합 재무제표”에서 가치가 평가되었다. 정부전체 통합 재무제표는 1,500개의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대조, 확인하여 테스코(Tesco)나 리오틴토(Rio Tinto)와 같은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국가가 가진 것은 무엇이고 빚진 것은 무엇인지 국가의 자산과 부채의 합계를 산출한다. 이러한 재무제표는 국가재정상태를 보다 잘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준비과정에 10년 이상이 소요된 이 프로젝트는 투명성이라는 명목하에 훨씬 더 많은 양의 회계정보를 생성해내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고 있다. 금융 및 국채위기로 인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에 이러한 방식으로 공시를 하도록 요구하는 압력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영국정부를 설명하는 새로운 수치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측면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점으로 인해, 이러한 회계개혁으로 관리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노력을 정당화할 만큼 유용한 정보를 충분히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보다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그 예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데이터의 범람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IASB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1) 2012년 3월 8일, Financial Times 기사 번역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제정하는데, 이는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연합,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한국 등, 다른 여러 국가의 상장기업이 따르는 회계기준이 되었다. IASB의 한스 후거보스트(Hans Hoogervorst) 위원장은 올해 3월에 한 연설에서 “우리가 과중한 공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보다 간결한 재무보고방식을 택할 경우, 핵심적인 세부사항을 생략하게 될 위험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어느 한 투자자에게 복잡하고 어수선한 공시내용이 다른 투자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영국의 정부전체 통합 재무제표의 사례가 명확하게 보여주듯이 투명성과 효율성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IFRS에 따라 작성된 영국의 대차대조표는 국가발행 대차대조표 가운데 가장 야심찬 것이라 말할 수 있다. 20년 전 국가회계의 선구자는 뉴질랜드였는데, 당시 뉴질랜드 최초의 대차대조표 발행을 총지휘한 루스 리처드슨(Ruth Richardson) 전 재무장관은, 퇴임하고 한참이 지난 이후에도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전세계 대부분에서 공공부문의 회계처리에 있어 조악한 현금주의 방식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을 때, 이를 폐기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있어 엄청나게 다른 재정적 환경”을 마련한 것이었다고 리처드슨 재무장관은 말한다. 그리고, 그리스의 몰락은 자산과 부채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을 예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그와 같이 열성적이지만은 않다. 영국의 대차대조표 작성방식을 비판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원형으로 늘어난 선사시대의 거석주(巨石柱)인 스톤헨지와, 화이트섬에 위치한 빅토리아 여왕의 별장인 오스본 하우스를 포함하여, 400여 개 이상의 유적지를 관리하는 영국문화유산관리소(England Heritage)의 사이먼 털리(Simon Thurley) 소장이 있다. 그는 회화작품, 웅장한 저택, 그 밖의 유산자산에 대해 사용하는 회계기준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때, 영국문화유산관리소는 회계공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스톤헨지에 대한 가치를 의무적으로 평가해야만 하는 상황을 우려했었다. 실제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매물로 나온 기업으로 가정하여 이론상으로 스톤헨지의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털리 소장은 인정했다. 매년 1백만 명 이상이 스톤헨지를 방문하고, 입장료는 성인 1인당 7.50 파운드이다. 털리 소장은 “우리가 스톤헨지를 시장에 내놓는다면, 아마도 아주 높은 금액에 팔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테마파크의 모형을 적용해서는 스톤헨지를 둘러싼 고대의 미스터리 뿐만 아니라 영국문화관리소의 수탁관리역할을 공정하게 평가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스톤헨지가 결국은 “집기비품”이라는 정부전체 통합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에 뭉뚱그려 포함된다는 사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다. 중국에는 영국문화관리소는 평가실시비용이 공시의 이익에 비해 너무 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스톤헨지와 이들이 관리하는 국보의 거의 대부분을 영국의 대차대조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의 암호해독장치인 이니그마 머신(Enigma Machine)과 같은 역사적 유물에 대한 가격

책정을 거절한 국방부는 물론이고, 대형 박물관과 미술관도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의 장난처럼, 결정된 회계기준에 따르면 비교적 최근에 취득한 것을 장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다이아나와 악타이온”이 정부전체 통합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 작품은 2009년에 런던의 국립미술관(London's National Gallery)과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ies of Scotland)이 서덜랜드 공작으로부터 5,000만 파운드에 구입한 것이다. 이제 “다이아나와 악타이온”은 국립미술관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되고 통합과정을 거쳐 영국의 대차대조표에도 포함되는 26점밖에 되지 않는 작품 중 하나가 되었다. 티치아노 작품의 현재 가치는 공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장품의 1퍼센트만을 차지하는 26점 작품의 전체 가치는 1,330만 파운드로 중세시대의 “윌튼 이면화”, 홀바인(Holbein)의 “대사들”이나 컨스터블(Constable)의 “건초마차”처럼 공시되지 않은 명작들의 추정 가치에 비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영국 국립미술관 이사회는 일부만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소장품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게 되는 가능성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산자산의 자산계상 규정은 많은 경우 의미 있는 가치평가가 불가능한 이러한 양도 불가능하고 독특한 자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차대조표와 현실의 차이는 박물관, 미술관, 유산관리기구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의회를 대신하여 공공지출을 감시하는 영국 감사원(NAO: National Audit Office)에서 정부전체 통합 재무제표의 다른 부분에서 발견한 훨씬 더 거대한 수조 파운드 금액의 누락과 비교하면 사소한 금액이다. 영국 감사원은 최초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의견을 표명했다. 우선, 재무제표에 영국의 철도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네트워크레일(Network Rail)과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oyal Bank of Scotland)과 같은 규제금융대상 금융기관이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정부전체 통합 재무제표는 영국이 1조 2,100억 파운드의 자산과 2조 4,200억 파운드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지적한 누락 기관은 약 3조 파운드의 자산과 같은 자리수의 부채 규모를 가지고 있다.

지난 2월에 영국 하원의 공공회계위원회(House of Commons Public Accounts Committee)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과 같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전체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에 걸린 시간뿐 만 아니라 장기 의무의 현재 비용을 평가하는 데에 사용되는 할인율이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이러한 지출 약정액 가운데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은 연금관련된 것이다. 현 시점에서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미래 퇴직급여의 누적발생 순원가는 1조 1,300억 파운드라고 산출되어 톱뉴스로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재무부의 최고위급 공무원인 니콜라스 맥퍼슨 경(Sir Nicholas Macpherson)은 무엇을 기초로 이를 계산할 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주관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회계위원회의 질문을 받고, 맥퍼슨 경은 절대다수의 국민에 대한 연금미지급금을 고려했다면 순 연금부채는 수조

파운드 더 증가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에 회계기준에서 정부의 세금인상권한(Tax-raising powers)을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허용했다면, 아마 순연금부채 전체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가능한 결과 간에 현기증이 날 정도로 큰 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리처드 베이컨(Richard Bacon) 보수당 하원의원은 소리쳤다. “닉 경, 이걸 제가 그동안 들었던 것 중에 가장 터무니없는 소리군요.”

공공회계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가 전부 부정적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정부전체 통합 재무제표가 많은 것을 포함하지 못하며 이외에도 기타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투명성과 회계책임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하원의원들은 재무제표의 수식들이 위협의 미래 추정원가를 부각시켜서 세금 지원을 받는 국민의료보험제도(NHS: National Health Service)에 대한 의료과실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위협을 영국정부가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과중한 공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영국의 재무제표 실험에 대해서 회계분야의 주요 인사들은 지지를 보냈다. “정부에 민간부문과 동일한 보고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후거보스트 위원장이 말했다. 네덜란드의 전직 재무장관이기도 한 후거보스트 위원장은 스톤헨지의 재무제표상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영국문화유산관리소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공공부문회계개혁의 필요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유로의 창조는 “유럽의 창의적인 회계의 하나의 큰 축제”였다고 그는 말한다.

전문가 조직인 국제회계사연맹(IFA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의 이언 볼(Ian Ball) 회장은 뉴질랜드가 민간부문방식의 국가재무제표를 도입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영국보다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국가들에는 프랑스, 미국 및 호주가 있다.) 이언 볼 회장은 연금부채와 같이 수량화하기 어려운 부채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관적인 추정절차를

비용이 따르는 추가 공시

민간부문에서 한동안 회계공시규정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었다. 회계법인 KPMG가 미국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연간보고서의 평균 페이지수는, 2004년에서 2010년 사이에 실례로 16퍼센트가 증가하여 주식 공시내용이 28퍼센트 증가했다. 이러한 추가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이해할 시간이 필요했다. “무한한 공시는 비용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KPMG가 지적했다.

특히 지금 리스회계분야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양대 회계기준제정기구인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런던에 소재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는 부외부채 형식으로 취급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그 밖의 리스계약을, 은행차입금과 함께 대차대조표에 공시하도록 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특히 타격을 많이 받게 될 소매업체와 항공사는 이러한 개혁에 가장 크게 반대해왔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비판은 플로리다주 올랜도

옹호한다. 국가들은 표준적인 국가재무제표의 차입금 수치만 보고는 부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그는 “채무증권만으로 정부의 부채를 측정하기에 불충분하다.”라고 말한다.

국가재무제표가 뉴질랜드 공공부문에 확고하게 정착되었지만, 비판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09년 당시 뉴질랜드 감사원장이었던 케빈 브래디(Kevin Brady)는 공공부문의 회계기준을 IFRS로 변경하는 방안의 문제점을 요약하여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로 “새롭고 불필요하게 복잡한 규정이 도입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결과로 이제 많은 공공부문기관들이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정부전체통합 재무제표가 뉴질랜드에서처럼 영국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제 적용상 개선될 점이 많을 것이다. 생성된 모든 재무제표의 정보를 실제로 활용하는 절차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일부 비판자들은 최소한 한편으로는 안도할 수 있을 것이다. 털리 영국문화유산관리소장은 적절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자신의 조직에 적어도 한 가지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상장된 부동산 기업과 비교하여 예산으로 수취하는 유지비용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는 “영국문화유산관리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방대한 유지비용의 적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스톤헨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까다로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소재의 비영리조직 전문 회계사 마이클 배츠(Michael Batts)로부터 제기되었다. FASB에 보낸 서한에서 배츠는 개정안이 “실질적 가치 없이 재무보고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FASB가 기관들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강요하는 허구적인 자산과 부채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허구를 쫓는다면 왜 리스회계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있는가? 왜 새로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조직이 추정 고용기간동안 해당직원에게 대한 보수를 추정하여 그 현재가치와 동일하게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지 않는가? 그렇게 한다면 기업들의 대차대조표에 수조 달러가 증가할 것이다.”

지난달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다른 여러 기관은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내에 19만개에서 3백3십만 개의 일자리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 것이며, 이는 GDP가 약 275억 달러에서 4,790억 달러까지 줄어드는 효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회계학 교수인 앤소니 캐터너치(Anthony Catanach)와 에드 케츠(Ed Ketz)는 이러한 개입을 일축했다. 이들은 늙은 투덜이 회계사(Grumpy Old Accountants)라는 공동 블로그에 “이러한 종말론적 예언은 어리석음 뿐만 아니라 즉흥적인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들은 리스부채가 단순히 이론에 집착하는 회계사들의 광적인 상상의 산물이 아님을 입증하는 간단한 방식이 있다고 말하면서, “임차인이 한 두 차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덧붙였다.

공지사항

김상노 팀장_국가회계기준센터 총괄팀장
Tel_02_3149,7551 / e-mail_alcaz@kicpa.or.kr



뉴스레터 구독 신청 안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www.nasc.or.kr)에 회원가입 또는 ② 02-3149-7560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www.nasc.or.kr)에는 국가회계관련 뉴스, 발간자료, 기준 및 법령, 세미나 및 교육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소 국가회계에 관하여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할 수 있는 코너와 FAQ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뉴스레터, 정부회계저널, 알기쉬운 국가회계기준 등의 발행물과 세미나자료, 연구보고자료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국가회계 및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 제안

국가회계제도 및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을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의 [의견제안] 메뉴에서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NASC

VISION

국가 재정부문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정착

전략
목표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국가회계기준의 충실한 이행 방안 마련
재무제표 공시자료 유용성 제고 방안 마련
체계적인 국가회계기준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수행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도 제고
원가정보의 성과지표와의 연계 및 예산에 환류를 위한 방안 마련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재정지표 개발
각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자료 제공

국내외 회계환경변화 대응
외국정부회계제도(미국, 영국, IPSAS 등) 동향 분석 및 연구
공공부문(지방, 공공기관) 회계환경 동향 분석 및 연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공감대 형성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선도합니다.

NASC 기획재정부위탁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enter 국가회계기준센터

| 위탁운영기관 | **KICPA** 한국공인회계사회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120-0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85-10 한국공인회계사회 3층 Tel_ 02.3149.7560 Fax_ 02.3149.7570 Homepage_www.nasc.or.kr

2012년 3월 30일 발행